

한우 자조금 04

2010년 4월호 앞새달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 돋우는 달

※ 앞새달은 4월의 순우리말입니다.

특집

구제역 비상! p.02

핫이슈

축산면허제 p.04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p.05

한우사랑 헌혈 캠페인 곰탕 전달 p.06

씨레

씨레 ▶ 갈아놓은 논이나 밭바닥의 흙덩이를 부수거나 바닥을 고르는데 쓰는 연장이다. 두툼한 통나무에 참나무, 박달나무 등 단단한 나무를 박아 넣어 만든다.

구제역 비상!

축산농가, 중국 등 발생국 여행 자제

4월 9일 인천시 강화군 한우사육농장(180두)의 구제역 재발에 이어 경기 김포 및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인천 강화지역의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하였으나 5.3km 떨어진 김포 젓소농가로 구제역 확산이 불가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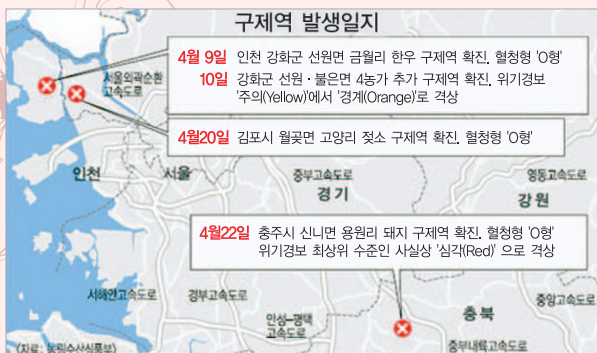
강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대상 농가는 212농가 29,669두로 145개 한우농가에서 6천마리의 한우를 살처분 했으며 김포는 돼지에서의 구제역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반경 500m 내 우체류를 매몰처리했다.

충북 충주는 22일 발생농가의 반경 500m 안에 있는 6개 농가의 소·돼지·염소 2997마리를 우선 매몰처분하고, 반경 3km 안에 있는 94농가의 가축 1만262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한다.

(4월 23일 기준)

※ 돼지에 구제역이 감염될 경우 소 보다 최대 3천배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음.

한우자조금은 강화에 이어 김포,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간지 및 축산전문지에 구제역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의 중국 등 발생국 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일간지에도 광고를 게재하고 해외여행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및 소독철저를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분포 지역 (2010년 4월 23일 기준)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
- 농장주와 농자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 출입 시 샤워 후 농장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
-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진 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 학검역원에 신고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해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 실시

2.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 반드시 소독하고 기록
- 차량 소독 시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세척·소독 후 운전자도 반드시 소독

3. 해외 여행 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자제, 발생국 여행 시 공항에서 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
※ 구제역 발생국가 : 중국(북경, 신장성, 광둥성, 간수성 등), 동남아 국가(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 해외여행 시 외국 축산농장 방문금지 및 입국 후 5일 이내 축사 출입금지
- 여행 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을 소독, 축사 출입 시 샤워 후 농장전용 옷과 신발 착용
- 입국 시 외국에서 축산물 반입금지

4.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 축사출입 금지(휴대 축산물은 소각·폐기,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품의 소독 철저)
-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
- 타 농장 방문 금지 및 가족·친구 방문 시 농장 밖에서 방문

신고일에 따른 보상기준

구분	보상비
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 신고	전액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신고	4/5에 해당 보상
5일 지난 후 신고	3/5에 해당 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2/5에 해당 보상

☎ 전국 어디서나 1588-9060

☎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시청 또는 군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우농가에게 드리는 당부의 글

남 호 경
한우자조금 위원장

연이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국 축산농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어려운 축산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와중에, 언론에서 계속 구제역 발생 소식을 접하신 한우농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심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한우농가 여러분께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시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한우산업은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구제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의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한우농가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소중한 우리의 한우와 재산을 스스로 지켜 나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강화지역 방역지원 해병대원 격려



구제역 발생지역인 강화지역에서 살처분 가축 매물 및 차단방역 등 방역지원에 만전을 다하는 해병대원을 격려하고자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우, 낙농, 양돈자조금이 강화도 선원면사무소에 자리잡은 해병장병 대기본부를 방문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곰탕 700팩과 한우고기 50kg의 위문품을 마련해 전달 하였다.

장태평장관은 “하루빨리 강화지역의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외부 전파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작업이 필요하다. 더욱 힘을 내어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 2사단의 양정수 대위는 “1일 200여명의 대원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구제역 발병 농가의 슬픔이 느껴져 가슴이 아프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어 더 큰 피해를 주기전에 차단해야 하므로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축산업도 기초적인 자격요건 필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면허제 검토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 포천 구제역 방역 추진과 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국내 축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업에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축산농가의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한 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농가는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어떤 농가의 부주의로 축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가축전염병이 생기면 해당 농가가 더 이상 축산을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할 근거가 없

다”며 “면허제 도입은 이를 가능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하려는 면허제는 세밀한 추진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제재 방안이나 ▲기존 축산 농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규모에 상관없이 전 농가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 할 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책 연구와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면허제 의무적용 대상 축종이나 축사규모, 기존 농가에 대한 조치, 면허를 취득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 관 빈 지회장_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축산업면허제 부동산 투기 등 악용 우려 현행 등록제 올바른 정착이면 충분”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축산업 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등록제를 통해 농가들의 정밀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보완해 나간다면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얼마만큼 면허제를 통해 농가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축산면허가 단순 축산기술을 익힌 사람의 평가보다는 축산면허가 공신력을 가져 자격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축산업면허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도시인근지역에서는 축사신축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면허제를 악용해 이들 지역을 선점한다면 실제 축산농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냉정하게 판단해 우리 축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믿음직한 한우산업, 새로운 소비층 개별홍보 · 제도개선 필요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개최...2009년 사업결산 원안 의결



◀ 한우자조금 결산총회가 3월 22일 개최되었다.

▼ 남호경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09년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으나 한우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 향상 및 한우의 소비기반을 확대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3월 22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갖고 2009년도 결산안을 의결, 한우산업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한우자조금은 농가거출금 125억6698만원과 정부보조금 82억7800만원 등 총 263억6934만원이 조성된 가운데 소비홍보부문에 총 93억4988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에 52억5524만원, 조사연구사업에 7억6578만원 등 총 165억5700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97억원이 올해로 이월되며 농가거출금 124억8천만원, 정부지원금 90억원을 승인받아 총 311억8천만원이 운용될 예정이다. 올해 자조금 사업계획의 주요 조정내역 골자로는 정부지원자금이 사업 내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토대로 TV, 라디오, 신문광고비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 농가거출금으로 진행하며 정부 매칭 펀드는 사업비 중 조사연구 및 교육 ·

정보제공은 50~100%지원, 운영비 및 징수수수료는 50% 지원한다.

2009년도 자조금 사업 보고결과 경기불황 및 신종플루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신뢰회복과 한우 소비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비층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한우농가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한우를 홍보했다.

기타논의로는 근출혈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근출혈이 발생한 농가에 피해액을 보험식으로 보상해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것인데 자조금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향후 TV와 라디오, 신문 광고비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과 시식회의 홍보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초의 찡그림이 빚어낸 따뜻한 사랑 만들기 '두 배 사랑 나누기 한우사랑 헌혈 캠페인' 큰 호응 얻어



한우자조금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두 배 사랑 나누기 한우사랑 헌혈 사랑 캠페인'의 결과로 한우 사골 곰탕 5천 팩(800g)을 3월 26일 대한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두 단체는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자 이름으로 한우 사골 곰탕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협약했다.

한우자조금과 적십자의 '두 배 사랑 나누기' 캠페인은 수도권 헌혈의 집 및 헌혈 버스 50개소에서 진행됐

으며, 이 기간 동안 헌혈 참여자 수는 신종플루와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1,750명이 증가해 9%이상 참여 상승 실적을 기록했다.

한우자조금은 대한적십자사에 한우사골곰탕 1만명분을 기탁했으며, 특히 양천강서지역을 관할하는 적십자봉사관은 전달된 한우 사골 곰탕을 다문화 가정 및 지역 사회 봉사 시설에 전달했다.

항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은 "어려운 시기 18만 한우 농가에 보내주신 국민의 온정이 또 한번 불우 이웃에게 전달되는 감동적인 자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불꽃 승부, 뜨거운 감동' 청도소싸움축제 48만명 환호

청도소싸움축제를 보기 위해 48만여명이 청도군을 방문했다. 3월 17일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에서 개막했던 2010 청도소싸움축제가 21일 뜨거운 관심을 뒤로 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도군에 따르면 국제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48만 여명으로 21일 일요일에는 이번 소싸움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은 18만여명이 다녀가 일일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형 소싸움 전용 경기장에서 개최된 청도소싸움축제는 국내외 언론사와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AP, AFP, CNA, 교토뉴스 등 13개의 외신과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등 외국인 관람객도 눈에 띄게 크게 늘어 국제적인 축제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 한우자조금은 이런 국제행사에 우리 '한우'를 알리는 홍보행사를 마련했으며 남호경 위원장이 직접 한우 시식회에 참석해 관광객에게 한우 고기를 조리해 주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한우’

생방송투데이 한우의 사육과정 및 요리법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보양식인 한우의 사육과정과 다양한 요리방법을 소개한다. 농가의 철저한 사양관리로 사육된 한우가 쇠고기이력제로 투명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맛있는 선호부위와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기는 웰빙부위를 알려준다.



드라마 · 영화 PPL 및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 심사결과 발표

2010년 드라마 · 영화PPL 및 기업체 연계 소비행사 심사결과 드라마PPL은 크리에이티브그룹 다다(부자의 탄생), 에이스토리(결혼해주세요, 신데렐라언니, 아줌마 밴드)를 선정, 영화 PPL은 보리픽쳐스(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가 결정됐다. 또한 기업체 연계 소비홍보행사는 신화가 채택됐다. 한편 앞서 언급한 업체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최종시행 대행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한우이유식을!!

가족과 한우가 만나는 5월의 소비자 체험이벤트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한우이유식!’ 이란 주제로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연계한 한우이유식 소비자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에 한우이유식 레시피를 올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우판매인증점 식사권을 제공한다. 아기는 생후 5개월 이후부터 철분이 고갈되므로 아기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철분 및 동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을 필요로 한다. 한우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아기의 영양분 보충에 좋은 음식이다. 이에 이유식을 준비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체험이벤트를 진행하고 소중한 아기에게 안전한 한우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우유통감시단

‘한우 구별법 노하우 공유’ 정기교육 실시 한우이력제와 비슷한 수입육 스티커 색상변경 제안



▲ 50명의 전국 유통감시원이 수입육과 한우샘플을 직접보며 차이점을 확인했다.

한우유통감시단 정기교육이 용산역 회의실에서 지난 9일 진행했다. 전국의 유통감시단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우 구별 및 유통감시관련 노하우를 나누며 관련교육을 배웠다. 김홍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수입산의 경우 핏물이 많이 빠지며 빠른 시간내에 산화되어 육색이 검어진다”며 한우와 호주산, 미국산의 다양한 구별법을 알려줬다. 한편 천성정 서울지역 유통감시원은 “현재 유통되는 수입산의 이력제 스티커의 경우 한우의 이력제 스티커와 비슷해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에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티커 색상 변경안을 제안했다.



전국 118개 한우인증점 소비자에게 믿음으로 다가가 2010년 1차 한우판매 인증 6개 업소 신규 선정



2010년 1차 한우판매 인증점 선정발표 및 한우판매 인증제 정기교육이 3월 30일 센트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한우판매 인증점으로 수여한 곳은 총 6곳으로 총체보리한우검단점(인천), 초산, 청우정(이하 경기), 홍길동한우마을(전남), 우람한우마을, 양산축협셀프식당 2호점(이하 경남)이다. 이로써 기존 112개 한우판매인증점에서 6개의 신규 업체를 포함, 총 118개의 업체가 전국에서 한우판매 인증점으로 영업을 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자



이 종 헌 단장

늘푸름홍천한우 사업단 / 한우 연구회 이사



고구려 고분벽화 농사신
(중국 길림성 집안 제 5호분)

등록우시장에서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어 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서로 좋은 송아지를 고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겨우내 그 놈의 구제역이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송아지 꼬랑지도 못 만지다가 겨우 마음 좀 편히 먹으려 했더니 이번에는 저번 놈보다도 더 센 놈이 왔다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소리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발생 농가는 어쩔 수 없다지만 자식같이 사랑하던 한우를 땅에 묻어야 하는 다수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또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늘에 계시는 농사신이시여!

그 동안 우리가 돈 벌이에만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 것을 뉘우친 마음으로 굵어 살피 주시면 앞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우에게 깨끗한 국내산 육송 깔짚으로 자리를 펴 드릴 것이며 값이 조금 싸다고 해서 병균에 오염된 나라의 조사료도 먹이지 않겠나이다.

또한 돈이 조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질병은 차단 방역기로 소독을 하여 이러한 수모를 겪지 않도록 할 테니 구제역이란 놈을 하루 빨리 거두어서 은하수 밖으로 내던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한우를 잘 기르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과 고통스럽게 싸워가면서 애쓰지 말고 미리미리 내 축사에는 내가 먼저 방역을 하고 외부인 중에서 질병·방역에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집안으로 들어 보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맛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키웠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사육농가에서는 소비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계속 만들어야 하며 그것만이 앞으로도 우리들이 살아남을 길일 것이다.

한우를 키우는 일은 종합 예술이다.

개량, 방역, 사양관리, 깨끗한 환경 등 어느 한 가지라도 게을리 하면 이 빠진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천년 이상 우리 땅에서 살아온 한우가 앞으로 오천년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정성을 기울이자!

2010년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입니다. 홈페이지(<http://www.agrix.go.kr/manual>)로 가시면 지침서 전자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고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제4권 축산부분을 요약 게재하였습니다. <편집자주>

목차

I. 사육기반확충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5.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6.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7.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9.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3월호에서 이어집니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대도시, 수도권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5개 이상의 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육 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
- ※ 사업을 희망하는 시·도, 시·군 또는 농협중앙회는 입지를 확정하고, 입점 희망 브랜드 경영체를 사전에 모집하여 브랜드육 타운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주변시설비, 판매장, 음식점
- ※ 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지원비율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 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사업량 : 4개소(2년차 계속사업)
-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사업비 : 100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축협, 농가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1.1 이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한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의 축사 및 사육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한우	216천원/㎡	-	200백만원	250백만원

※ 주1) 지원한도액은 보조+융자의 합산액이며,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2.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1)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에 대하여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책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2010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시·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사육농가) 선정 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

악성질병 유입농가 보상 배제

농식품부는 강화군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뒤 그 병이 발생하면 매물 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또 이런 농가들은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근 구제역 발생국 등 외국여행을 다녀온 축산 농가는 귀국 후 5일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고 옷과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도 당부했다.



한우사업단 심포지엄 개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우사업단연합회와 농어민신문은 6일, aT센터에서 400여명의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노수현과장은 “사업단 운영을 평가해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고 농가 스스로 사업단을 발전시키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 바로마켓 1주년 기념행사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과천 경마공원에 마련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이 개장 1주년을 기념해 문화·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민속놀이·시식체험·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행사기간 동안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시중가격에 비해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행사가 진행했다.



한우 등심 체화 현상 '심각'

대표적인 한우고기 선호부위인 등심의 체화 현상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우고기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구이용 대표 부위인 등심의 체화 현상은 지난해 하순경부터 시작해 올 구정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더욱 심화되면서 유통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및 수도권은 물론 굴지의 한우 브랜드가 생산되고 있는 강원과 전국의 대도시 등 전국에 걸친 현상으로 각 유통업체 및 브랜드의 등심 재고 물량은 최소 1~4톤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우정책 Q&A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배경	철저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진으로 국내 구제역 발생방지 및 국내 축산업 발전도모
추진 내용	① 국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진 - 국경검역 조치 : 병원체 유입경로별 차단 • 수입건조 : 중국 등 위험국 산은 2회 소독(수출국, 국내) 및 정밀 검사 후 반입 • 입국자 신발 소독 : 모든 입국장에 발판소독조 운영 • 휴대 축산물 검색 : 위험국 운항노선 집중 실시 • 외국인 연수생·근로자 입국 시 구제역 예방교육 실시 등 - 국내 방역조치 : 농장소독 및 예찰 활동 정례화 •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 소독 실시 • 예찰요원(3천명)을 통해 요원별로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예찰 실시 등
문제점	•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인접 국가의 구제역 확산과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 구제역 유입 위험성 상존
대책	• 2010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월중 추진하던 방역대책을 5월까지 연장시행
참고 사이트	www.nvrqs.go.kr(가축방역 → 구제역)



청소년 한우 맛체험

① 경남 고성 · 중앙고 | 4월 6일



정책 설명회

- ② 경남 함평 · 3월 23일
- ③ 강원 양구 · 3월 25일
- ④ 충북 청원 · 3월 25일



시군지역 소비홍보

- ⑤ 전남 진도 · 영등제 | 3월 30일
- ⑥ 충남 논산 · 딸기축제 | 4월 10일



5월의 할 일

일반관리

다가오는 더위에 대비하여 축사의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한낮은 더우므로 운동장에는 그늘막을 설치한다. 방목지에 있는 예리한 돌, 그루터기, 쇠붙이 등을 제거하고 목책 등 방목시설을 보완하며 축사나 운동장에 있는 예리한 돌이나 콘크리트 조각 등을 치운다.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용수 확보에도 대비한다. 산야초 및 농가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줄인다.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5.31까지) 한다.

사양관리

날씨가 서서히 더워짐에 따라서 음수량도 많아지므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소금을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사료조나 방목장 한 쪽에 비치한다. 고사리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서는 고사리 섭취에 의한 중독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목이나 예취 급여할 때에 주의한다. 날씨와 초생상태를 고려하여 방목을 시키고 방목 전에는 외부구생충을 구제한다.

비 맞은 풀은 하루쯤 말려서 급여하고 청에 사료 증가에 따른 설사병이나 고창증 등 소화기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장기간 보관 중인 볶짚의 상태를 살펴보고 눅눅한 것은 햇볕에 말려서 급여하며 빗물이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보관에 힘쓴다.

등급간 경락가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이므로 사양기술 및 경영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비육방식과 목표 육질등급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밀소선발, 사료종류 및 급여량, 비육기간 및 출하월령 등 사육체계를 확립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임신우 또는 임신 대상우에게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아까바네병 예방 백신을 접종하되 기초접종은 1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고 추가접종은 1회 접종한다. 축사주변에 물 웅덩이나 잡초를 없애고 퇴비장 등 모기서식처에는 살충제를 뿌려 모기발생을 줄인다. 10~30일령의 어린 송아지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특별히 위생적이면서도 통풍이 잘되게 해주고, 건조한 깔짚을 깔아주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건강상태를 자주 살펴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치료하고 보조사료는 한꺼번에 주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급여한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전염원의 차단을 통한 예방에 힘쓴다.

초지 및 사료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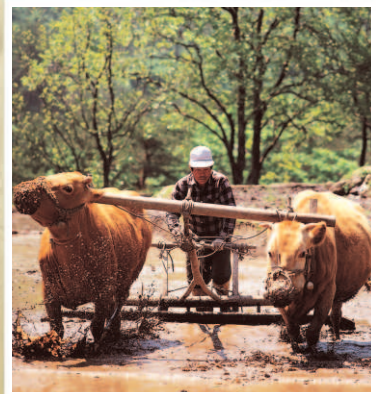
방목 또는 청초로 베어 먹이지 못하고 남아 출수한 목초는 사일리지 건조를 만들고, 방목 후 처소 예취하고 방목지에 떨어진 똥은 흙 뿌린다. 4월 중에 수확하지 않은 호맥은 빨리 사일리지를 만들고, 5월 초순까지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파종하되, 5월 10일경 이후에는 수단그라스를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3월 중에 파종한 연맥이나 유채를 청에로 예취하여 급여하기 시작한다.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표지이야기

씨레

긴 통나무에 끝이 뾰족한 이(齒)를 6~10개 정도 빗살처럼 나란히 박아 넣고 위에는 손잡이를 가로대어 만들었다. 흔히 눈에 쓰는 것을 '무논씨레', 밭에 쓰는 것을 '마른씨레'라고 한다.



애독자 코너

포천에 이어 강화까지 구제역이 발생해 농가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화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한 돼지도 감염되어 살처분범위를 3km까지 늘렸습니다. 온도가 올라 확산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의 한우농가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제역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구제역 예방방법 중 한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보내드립니다.

※한우농가의 참여확대를 위해 애독자 퀴즈 당첨자를 6명으로 늘렸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후 한우농가의 다양한 질문사항을 다루는 칼럼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에 한우농가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실생활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한우협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3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주형(충남 논산시), 유세진(울산 울주군), 장완자(전북 완주군), 박한철(경북 영주시), 최승삼(충남 예천군), 윤영삼(경남 창원군)



전국 한우像 순례 ⑬

충북대학교 '황소상'

1990년 9월 주성대 정창훈교수가 황소상을 제작하였다. 고락은 있되 격과 흥분함이 없는 우리나라 "황소"의 조용하고 소리없는 투혼과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참을성, 순종할 줄 알고 말없이 자기의 책임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의를 위하여 농도질은 항변도 할 줄 아는 선한 영물로서의 황소를 표현하고 있다.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비매품 제6권 제2호 통권 제54호 발행 2010년 4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리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신고일에 따른 보상 기준

구 분	보상비
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 신고	잔액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신고	4/5에 해당 보상
5일 지난 후 신고	3/5에 해당 보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2/5에 해당 보상

구제역 발생국의
여행을 자제합니다!



여행(방문)을 자제합니다!

- 중국(북경, 신장성, 광둥성, 간수성 등), 동남아 국가(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등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합니다!
-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농장 종사자는 신체와 의복, 소지품을 소독하고 5일 안에는 축사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농장소독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철저히 소독합니다!

- 매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반드시 소독합니다!
- 외부 출입자와 차량 출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 마을 공동방역단을 구성해 방역효과를 높입니다!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바로 신고합니다!



반드시 신고합니다!

- 소, 돼지, 사슴, 염소의 입술,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 형성, 절록거림, 유량 감소,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합니다!
- 신고가 늦으면 살처분 보상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우지조금관리위원회

전국 어디서나 **1588-9060** 또는,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시청 또는 군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신고합니다!